

2025.04.14.(월) 증권사리포트

◆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LS ELECTRIC

북미 진출 과정에서 만난 불확실성

[출처] 하나증권 유재선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260,000원으로 하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LS ELECTRIC 목표주가 260,000원으로 기존대비 7.1% 하향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026년 예상 EPS에 목표 PER 20배를 적용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대기업 국내외 투자 감소에 따른 배전반 실적의 둔화가 불가피하나 환율 상승과 양호한 수주를 기반으로 견조한 실적 흐름이 기대된다. 북미 빅테크 업체향 매출이 본격화되는 2분기 이후 유의미한 성장이 예상된다. 2025년 기준 PER 15.4배, PBR 2.4배다.

1Q25 영업이익 890억원(YoY -5.1%) 컨센서스 부합 전망

1분기 매출액 11,696억원으로 전년대비 12.6% 상승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 약세가 외형 확대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신규 법인 인수 영향으로 자회사의 성장이 유의미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전력인프라는 견조하고 전력기기는 소폭 둔화가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890억원으로 전년대비 5.1% 감소할 전망이다. 과거 전력인프라 부문 이익 성장을 이끌었던 배전반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력변압기와 배전기기 등 다른 주요 제품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향 배전기기 제품 수주가 증가하는 모습이며 2분기부터 실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전력인프라는 과거 고마진 배전반 비중이 감소하지만 변압기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 증설 완료 이후 추가적인 외형과 마진 성장이 기대된다. 자동화는 아직은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으로 보이며 신재생도 적자 구간으로 추정된다. 자회사는 LS파워솔루션 인수 효과로 전년대비 흑자 전환 흐름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수요는 견조하나 관세 불확실성 존재. 향후 영향 관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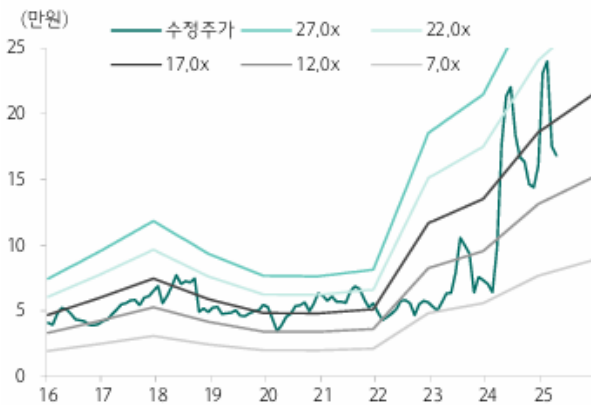
4월 발표된 반덤핑 관세율 16.87% 관련 비용 인식 규모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국내보다 북미 판매가격이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AD 리스크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편 상호관세의 경우 2024년 북미 매출이 1.3조원으로 상당히 컸던 점에서 영향은 일정 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공급자 우위 시장인 점을 감안하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가격 전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지난 3월 공시되었던 북미 빅테크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경우 후속 물량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규 고객 수요도 새로운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국면을 성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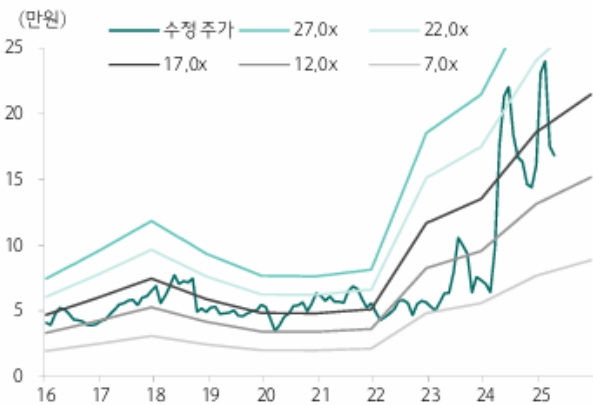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4,230.5	4,551.8	5,306.0	5,494.9
영업이익	324.9	389.7	454.5	522.2
세전이익	264.1	333.4	437.6	505.8
순이익	206.0	238.7	328.2	379.3
EPS	6,865	7,957	10,941	12,644
증감율	128.07	15.91	37.50	15.57
PER	10.66	20.21	15.38	13.31
PBR	1.26	2.61	2.41	2.16
EV/EBITDA	6.01	11.11	10.37	9.06
ROE	12.61	13.44	16.75	17.20
BPS	57,905	61,669	69,738	78,026
DPS	2,800	2,900	4,400	5,100

도표 2. LS ELECTRIC 12M Fwd PE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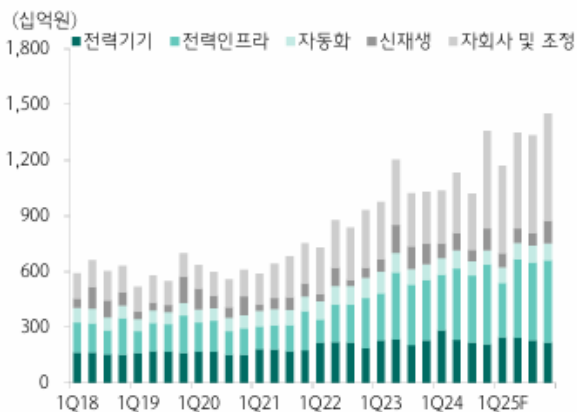
자료: LS ELECTRIC, 하나증권

도표 3. LS ELECTRIC 12M Fwd PB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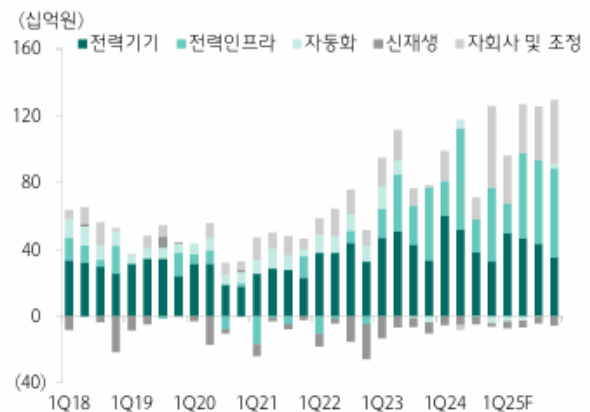
자료: LS ELECTRIC, 하나증권

도표 4. 분기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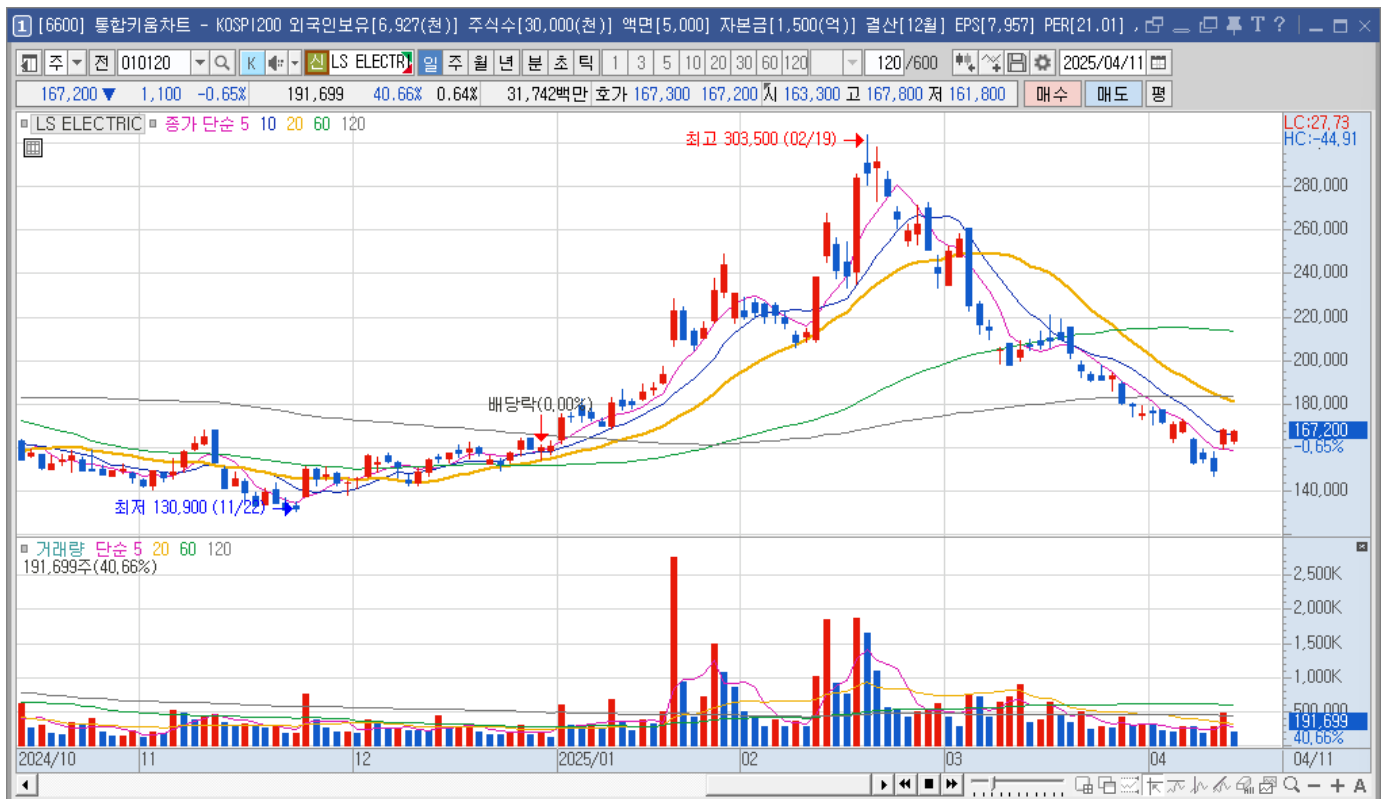


자료: LS ELECTRIC, 하나증권

도표 5.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LS ELECTRIC, 하나증권



이마트

영업이익 1조 원을 향하는 시작

[출처]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

1분기 높아진 기대치 충족

2025년 1분기 이마트 실적은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한다.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7조 4,151억 원(전년동기대비 +2.9%), 영업이익 1,432억원(전년동기대비 +204.0%)으로 전망한다. 긍정적 실적을 예상하는 이유는 1) 지난해 이루어진 고강도 구조조정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와, 2) 수익성 개선 및 구매 통합에 따른 상품 마진율 증가, 3) G마켓 연결 제외에 따른 PPA(영업권 관련 상각비) 감소(분기

240억 원), 4) 연결 종속회사 수익성 개선에 따른 효과 때문이다. 1분기 업황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영업 일수 감소와 국내경기 악화로 집객력 회복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 작업 효과로 영업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흑자 전환과 하반기 SSG.COM 실적 개선 가능성에 주목

이마트의 2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2분기 재산세 이슈로 고정비가 부담되는 구간이지만, 1) 고정비 절감 효과와, 2) 구매 통합에 따른 수익성 개선, 3) 신세계프라퍼티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이익 증가, 4) PPA 감소 등을 고려할 경우 흑자 가능성은 높다는 판단이다.

또한, 하반기는 SSG.COM 물류비 효율화 및 네오물류센터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어 이익 개선도 예상되어 긍정적이다. SSG.COM 거래대금 증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 주요 물류업체 주 7일 배송 확대에 따른 배송일 수 증가, ▶ 협력사 물류센터를 활용한 공급 능력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외형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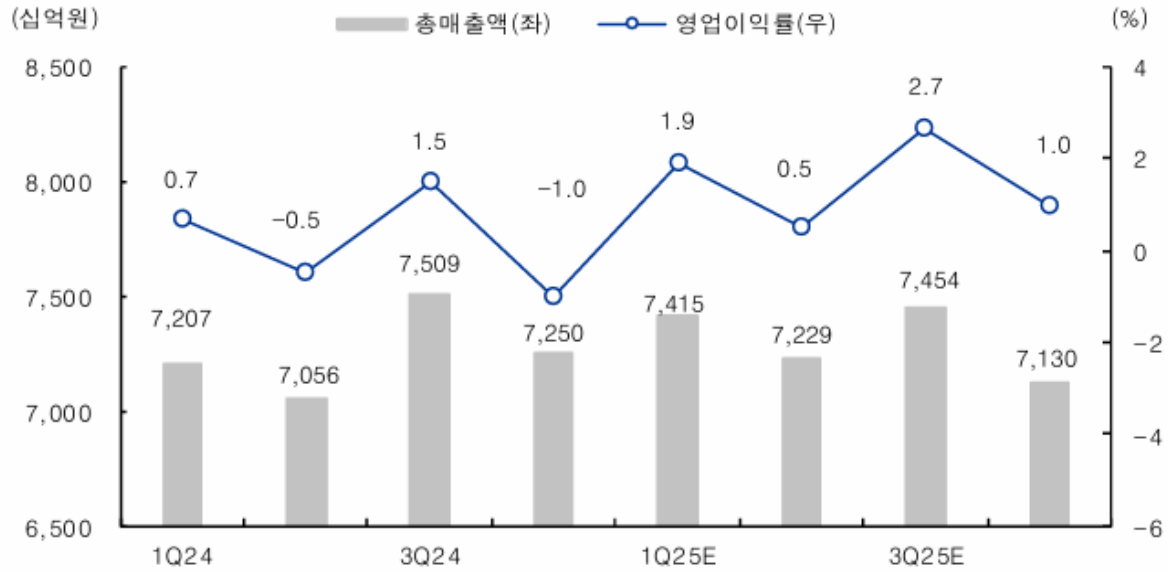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0.4만원 제시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 10.4만원을 제시한다. 목표주가 상향은 실적 추정치 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단위:십억원,배)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29,472	29,021	29,228	29,404	30,121
영업이익	-47	47	448	535	597
세전이익	-212	-605	209	457	679
지배주주순이익	-89	-590	174	385	575
EPS(원)	-3,196	-21,166	6,231	13,816	20,614
증가율(%)	-108.7	562.3	-129.4	121.7	49.2
영업이익률(%)	-0.2	0.2	1.5	1.8	2.0
순이익률(%)	-0.6	-2.0	0.6	1.2	1.8
ROE(%)	-0.8	-5.4	1.7	3.6	5.2
PER	-24.0	-3.0	13.0	5.9	3.9
PBR	0.2	0.2	0.2	0.2	0.2
EV/EBITDA	8.6	8.6	6.9	6.0	4.8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이마트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이마트, IBK투자증권





HD현대미포

선속을 다시 높혀라

[출처] SK증권 한승한 애널리스트

1Q25 Preview: 시장 예상치 상회 예상

1Q25 연결 매출액 1조 2,016억원(+20.1% YoY, -15.5% QoQ), 영업이익 482억원(흑전 YoY, +2.9% QoQ)으로 시장 예상치(449억원) 소폭 상회할 전망이다. 매출액 이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4Q24 K/L 척 수의 일시적 증가로 인한 비경상적인 탑라인 성장이었을 뿐, 조업일수 감소효과까지 고려하면 양호한 공정 진행률을 인식하고 있다. 영업이익 단에서는 저가호선 소화 및 공정 개선 효과 반영됐으며, 우호적인 환율 및 낮은 강재가 효과 지속되면서 전 분기 대비 의미 있는 이익 개선세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조선업 제재 반사수혜와 LNGBV

동사 올해 수주목표 38억불 중 LNGBV 4척 수주로 약 10% 달성에 불과하지만, 캐피탈 마리타임과 협의 중인 컨테이너선 14척을 포함해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로 인한 반사수혜 물량과 인과이어리를 고려하면 올해 수주목표 달성 가능성 높다. 글로벌 LNG DF 엔진 장착 선대 규모의 점진적인 확대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LNGC 발주로 향후 LNG병커링선(LNGBV) 수요는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동사는 연간 약 20척의 LNGBV 수주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 조선업 제재로 인해 중국 LNGBV 발주를 중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대부분의 LNGBV 수주 물량을 확보하며 목표치 달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향후 실적 개선세 유지와 함께 이전 대비 수주 규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P/C선의 빈공간을 MGC 함께 충분히 채워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20만원으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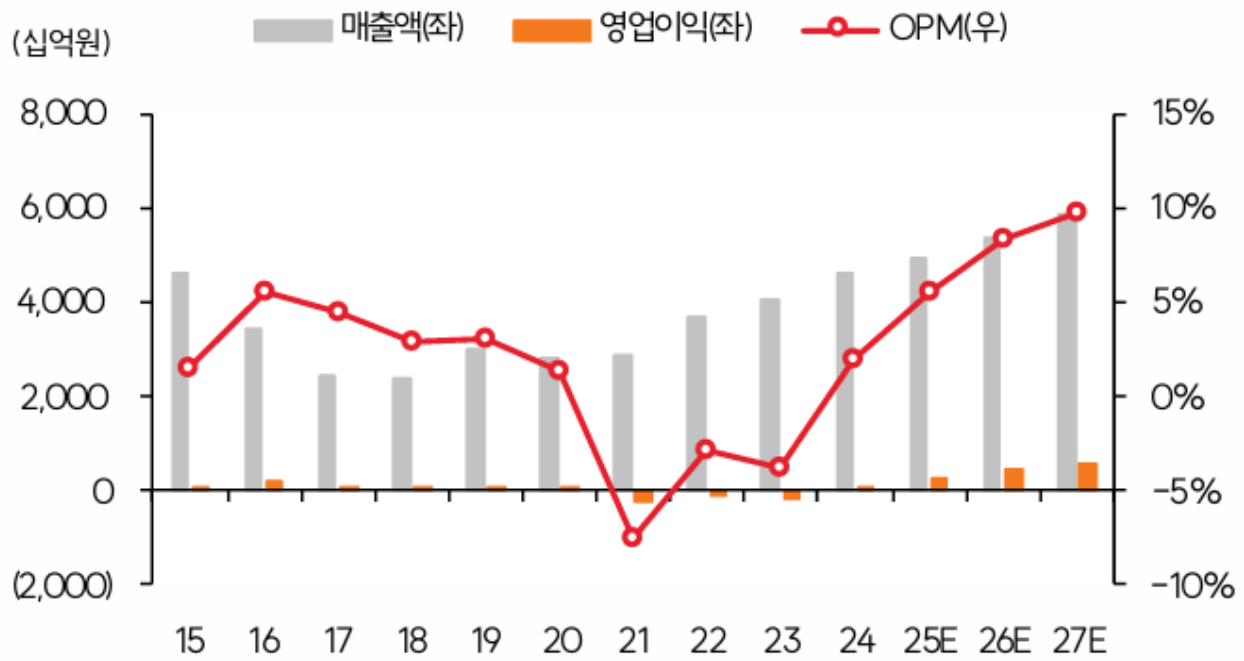
HD현대미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기존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 '26~'27년 추정 BPS 평균 66,709원에 Target P/B 3.0배를 적용하여 산출했다. 상반기 내 더딘 실적

개선 폭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으며, 새로운 모멘텀과 빠른 실적 개선세를 통한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조선주 최선호주(Top-Pick)로 제시한다.

영업실적 및 투자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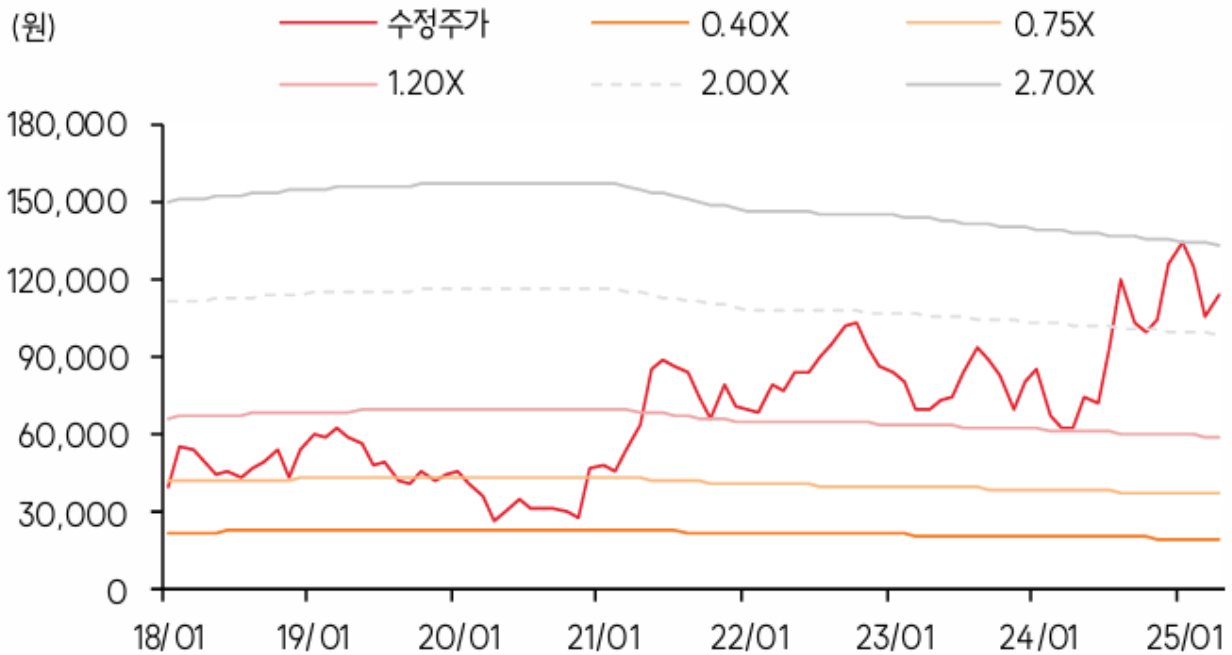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2025E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3,717	4,039	4,630	4,931	5,373	5,876
영업이익	십억원	-109	-153	89	276	451	574
순이익(지배주주)	십억원	-45	-143	106	201	330	407
EPS	원	-1,116	-3,579	2,642	5,028	8,256	10,184
PER	배	-75.7	-23.7	50.8	24.5	14.9	12.1
PBR	배	1.6	1.7	2.6	2.2	2.0	1.7
EV/EBITDA	배	-63.4	-44.4	34.3	14.4	9.5	7.7
ROE	%	-21	-7.0	5.3	9.4	14.0	15.3

HD 현대미포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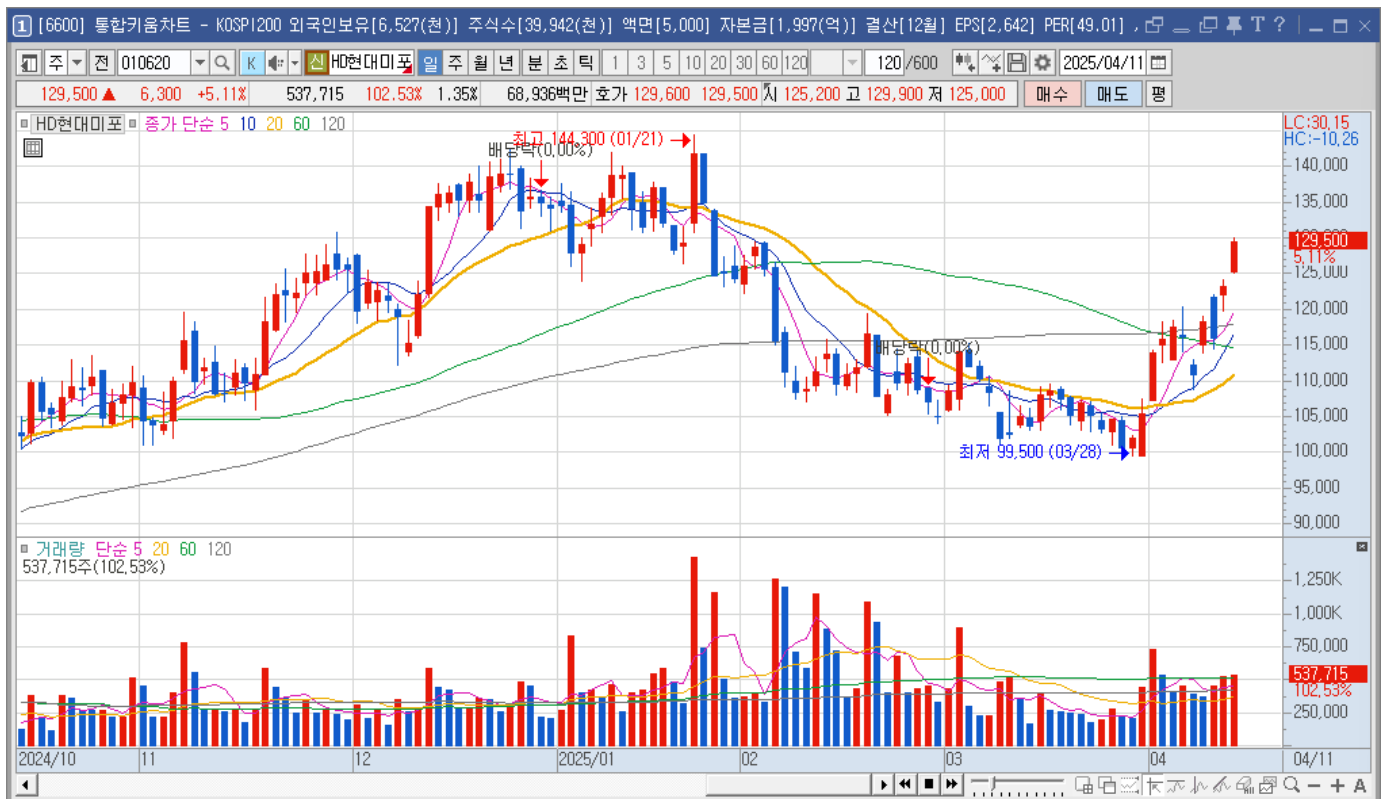


자료: HD 현대미포, SK 증권 추정

HD 현대미포 PBR Band Chart



자료: Bloomberg, SK 증권



LG생활건강

개선되지만, 심심한 실적

[출처] 신한투자증권 박현진 애널리스트

느리지만 모멘텀 찾아가는 중

더후 브랜드 리뉴얼, 유통채널 등의 효율화 지속으로 타 유사기업대비 단기 실적 기대치는 낮은 편. 중국 발 화장품 매출 성장은 긍정적이나 리뉴얼에 따른 단기 효과일 수 있어 지속성 여부는 시간 갖고 따져볼 필요 높음. 전 사업부문 매출 성장 동력이 미약하다 판단해 Trading BUY 의견 유지

1Q25 Preview: 개선되지만, 심심하다

1Q25 연결매출 1.75조원, 영업이익 1,39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이하동일) +1%, -7% 증감했을 것으로 전망. 사업부문별 매출은 생활용품 -3%, 화장품 +5%, 음료 +1%로 직전 분기 추세 유지 예상. 유통채널 조정과 브랜드 리뉴얼 성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지만 변화 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특히 생활용품과 음료 부문에서 마진 개선 포인트가 약함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더후' 브랜드 매출이 10% 이내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 해외 전체 매출 5,600억원으로 10% 내외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 중국이 여전히 한 자릿수 매출 성장 보였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북미 등 매출은 유의미한 증가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인디뷰티 저가 브랜드 중심으로 매출 증대는 긍정적이거나 여전히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은 10% 내외로 낮은 편. 화장품 마케팅비 증가 지속 예상되어 해당 부문 마진율이 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음료는 사업 효율화 과정 업데이트하며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따져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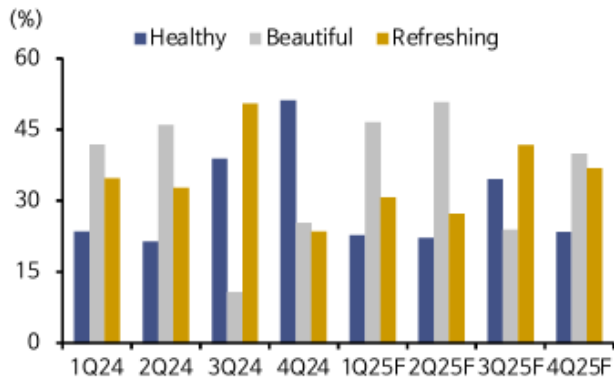
Valuation & Risk: 재귀를 기다리며 트레이딩

실적 추정치 변경폭 미미. 당장은 실적 상향 기대감 낮다고 사료되어 밸류에이션 매력도 제한적. 다만 미국발 익스포저가 낮아 방어주 선호 트레이딩 목적으로는 매수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3	6,804.8	487.0	142.8	46.5	2.7	1.2	7.4	1.0
2024	6,811.9	459.0	189.1	29.7	3.4	1.0	6.3	1.1
2025F	6,944.7	482.2	223.4	25.4	4.0	1.0	5.6	1.6
2026F	7,187.8	546.1	272.0	20.7	4.7	0.9	4.9	1.6
2027F	7,554.4	586.1	303.8	18.5	5.1	0.9	4.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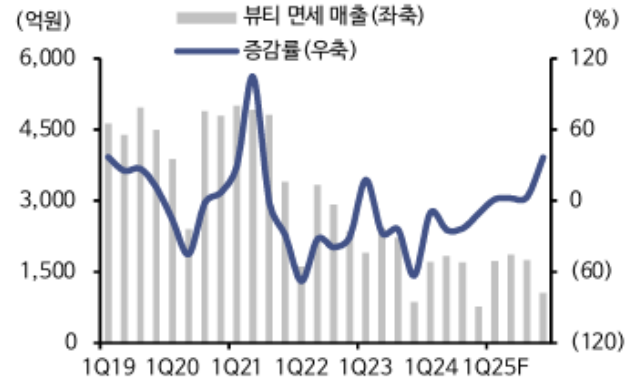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사업부별 이익 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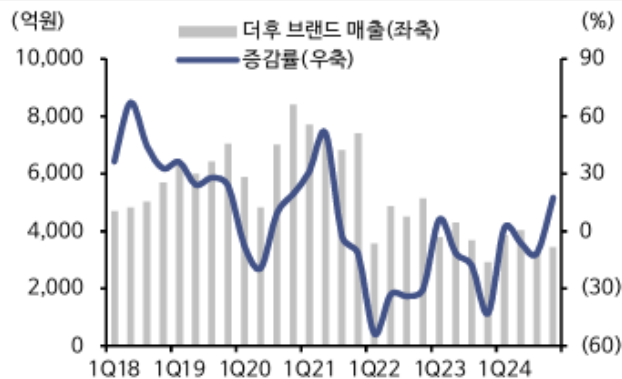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화장품 면세 분기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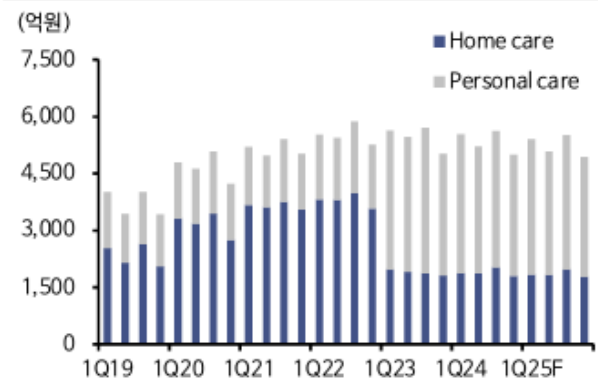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더후 브랜드 매출 추이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생활용품 사업부 내 카테고리별 매출 분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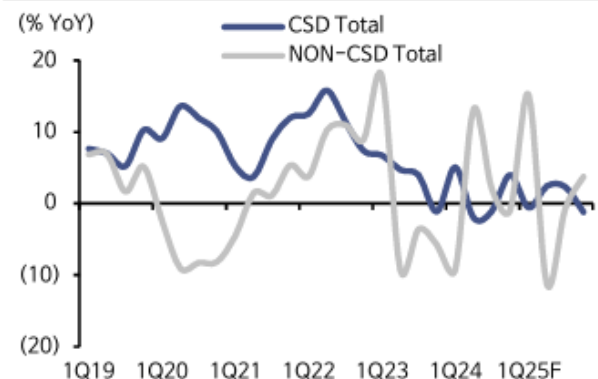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생활용품 사업부 유통채널별 매출 성장률 추이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음료 사업부 카테고리별 매출 성장 추이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HMM

1Q25 Pre : Uncertainty

[출처] 하나증권 안도현 애널리스트

1분기 영업이익 6,194억원 예상

1분기 평균 SCFI는 12%(YoY)/22%(QoQ) 하락한 1,761pt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HMM의 컨테이너선 매출액은 21% (YoY) 증가한 2.34조원으로 추산한다. 반면 벌크선 매출액은 1분기 시황 약세에 따라 선대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3,310억원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전체 매출

액은 17% (YoY) 증가한 2.73조원으로 추정되고, 비용 증가는 10% 수준으로 예상되는 바, 영업이익은 52% 증가한 6,194억원으로 전망한다.

관세와 물동량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 대상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물동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대화 되었다.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교역국 대상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기간 동안은 관세율은 10%로 부과된다. 다만 중국의 경우 관세율을 125%로 상향하였고, 이는 4월 9일 즉시 발효되었다. 글로벌 컨테이너선 물동량(톤마일 기준) 중 중국-미국 물동량 비중은 8%에 달한다. 현재의 높은 관세는 보복성 조치에 가깝고, 향후 하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단기적으로 중국 발 미주 물동량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 컨테이너선 운임은 하방 압력이 있으나, 과거 미중 무역분쟁 시기에도 미주 항 물동량은 증가했던 것을 참고하면 중장기적 물동량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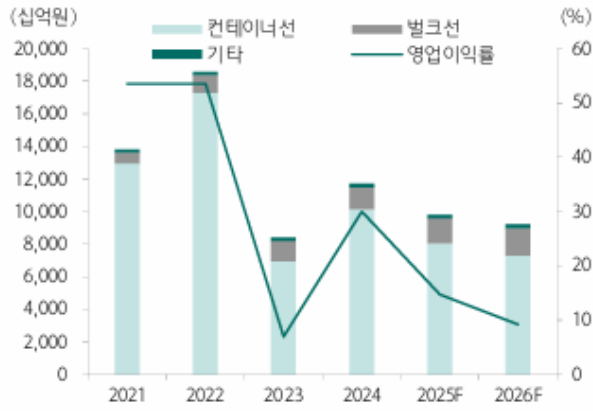
미국의 중국 선박 제재 현실화 시 목표주가 상향 가능

HMM은 컨테이너선 중 중국 선박 비중이 6%로 글로벌 선사 중 가장 낮고, 중국 조선소항 발주도 없어 향후 미-중 갈등에 따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미국 내 중국 선박의 입항 수수료가 현실화된다면 HMM의 현재 글로벌 Peer 대비 디스카운트 요인(낮은 시장점유율과 유사 규모 선사 대비 낮은 ROE)이 소멸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 PBR을 0.7배로 상향 가능하다고 판단한다(이익 추정치도 상향). 이 경우 목표주가는 21,000원이다. 다만 아직은 글로벌 Peer Valuation 대비 20% 할인한 목표 PBR 0.58배를 BPS(30,497원, 전환사채 주식전환 및 자사주 매입소각 반영)에 적용하여 목표주가 18,000원과 투자의견 Neutral을 유지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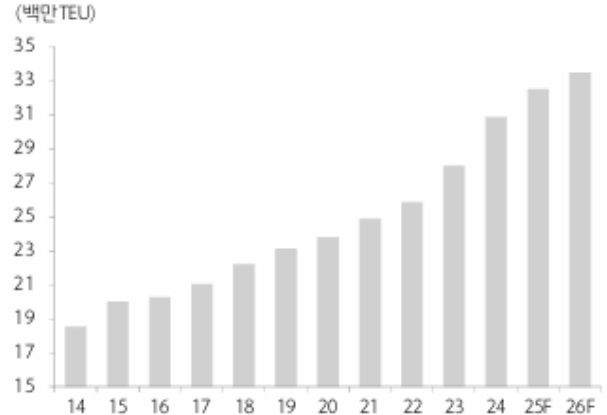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8,401.0	11,700.2	9,813.6	9,218.7
영업이익	584.8	3,512.8	1,446.3	850.3
세전이익	1,054.3	3,896.6	1,492.4	812.2
순이익	968.6	3,782.2	1,396.4	722.1
EPS	1,829	5,055	1,585	781
증감율	(91.16)	176.38	(68.64)	(50.73)
PER	10.71	3.49	12.06	24.47
PBR	0.63	0.56	0.61	0.64
EV/EBITDA	3.29	0.95	1.78	2.22
ROE	4.59	15.35	5.05	2.62
BPS	31,115	31,615	31,147	29,846
DPS	700	600	600	600

도표 3. HMM의 사업부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HMM, 하나증권

도표 4. 글로벌 컨테이너선 선복량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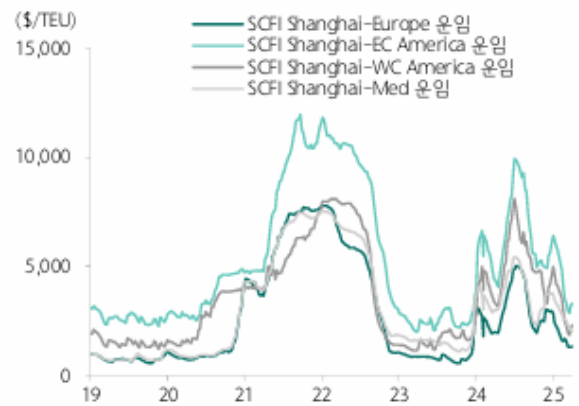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하나증권

도표 5.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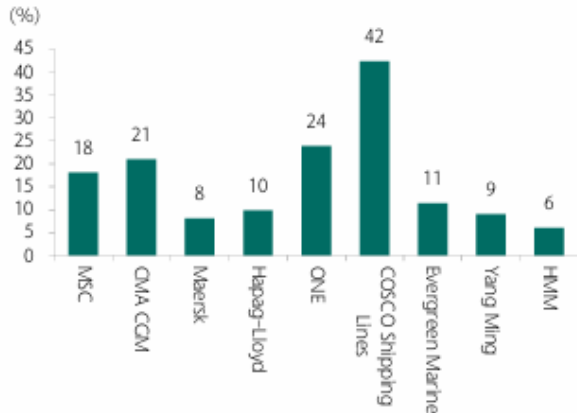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하나증권

도표 6. SCFI 항로별 운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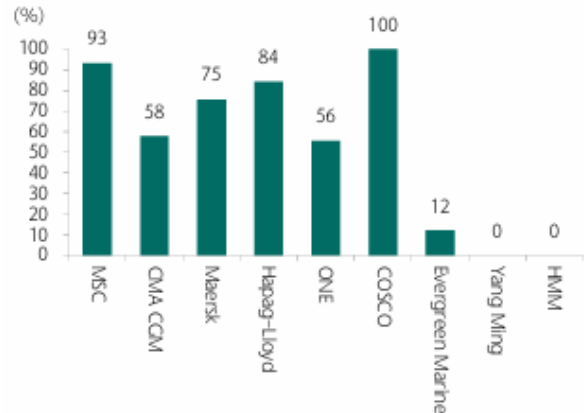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하나증권

도표 7. 주요 선사별 컨테이너선 중 중국 선박 비중



자료: Clarkson, 하나증권

도표 8. 주요 선사별 컨테이너선 오더북 중 중국 발주 비중



자료: Clarkson, 하나증권



제노코

KAI와 함께 그려갈 미래

[출처] NH투자증권 강경근 애널리스트

항공우주 및 방산 통신 전문 기업

제노코의 사업 분야는 위성통신, ESGE/시험장비, 항공전자, 핵심부품(방산)으로 구성. 동사는 위성탑재체, 본체, 발사체 및 위성지상국 등 위성 발사부터 운영까지 망라하는 토털 솔루션 보유. ESGE(Electrical Ground Support Equipment, 전기지상지원장비) 사업은 위성 발사 전까지 위성탑재체 및 위성본체를 점검하고 검증. FA/TA-50, KF-21 등에 탑재되는 항공전자장비 핵심부품 개발

KAI와의 사업 시너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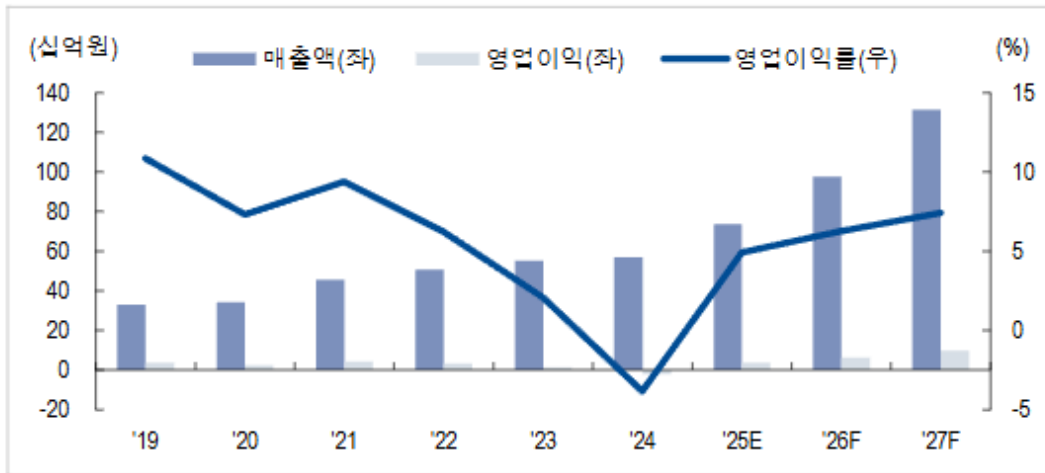
KAI(한국항공우주)의 경영권 인수 이후 사업 시너지 기대. KF-21 양산 개시, FA-50 해외 수주, 소형무장 헬기(LAH) 양산 증가 등에 힘입어 KAI의 실적 고속 성장세 예상. 동사는 KAI의 FA-50, KF-21, LAH, 무인기 등에 핵심 부품(DA, IBU, ISC, IMC 등)을 공급 중이기에 실적 동반 성장 기대. 향후 항공전자 장비 분야에서 국산화 부품 확대, MRO(유지보수) 사업 연계 전망

올해 실적 회복을 시작으로 향후 2~3년간 실적 고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2024년 4분기 말 수주잔고는 932.4억원(위성통신 340억원, 항공전자 156억원, ESGE/점검장비 80억원, 핵심부품 355억원 등). 하반기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 Northrop Grumman, Viasat과의 본계약, ANASIS-III 지상국 구축 사업, KAI 자회사 편입 이후 사업 본격화 등이 반영되며 수주 모멘텀 가속화

	2024	2025E	2026F	2027F
매출액	56.8	73.7	97.7	131.3
증감률	3.1	29.7	32.6	34.4
영업이익	-2.2	3.6	6.1	9.8
증감률	적전	흑전	68.8	59.1
영업이익률	-3.8	4.9	6.3	7.4
(지배지분)순이익	-3.1	2.5	4.8	8.1
EPS	-411.7	311.3	547.1	922.2
증감률	적전	흑전	75.7	68.6
PER	N/A	45.4	25.8	15.3
PBR	3.2	3.4	3.0	2.5
EV/EBITDA	N/A	15.7	10.0	6.2
ROE	-8.9	7.1	12.3	17.8
부채비율	154.4	172.5	188.8	200.5
순차입금	-15.2	-17.9	-22.5	-29.4

단위: 십억원, %, 원, 배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제노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두산퓨얼셀

단기 수익성 하락, 미국 진출은 기회

[출처] NH투자증권 정연승 애널리스트

단가 하락으로 단기 실적 하향. 미국 시장 진출로 기회 존재

투자의견 Buy 유지하나, 목표주가를 기존 25,000원에서 19,000원으로 24% 하향. 목표주가는 2025년 매출액에 글로벌 발전용 연료전지 기업 및 EPC 기업의 평균 PSR 3.3배(기존 3.8배)를 적용하여 산출. 목표주가 하향은 글로벌 Peer 기업들의 주가 하락과 실적 추정치 조정에 기인. 영업이익 추정치 조정은 연료전지 판매 단가 하락폭 확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반영

2가지 긍정적 요인 존재. 1) 일반수소발전입찰시장을 통해 국내에서 연간 180 MW 연료전지 시장 형성, 국산화율이 높은 두산퓨얼셀이 연간 90~100MW 신규 수주 확보 전망. 2) 하이엑시움(HyAxiom, (주)두산 내 미국 연료전지 법인)이 연료전지 생산을 중단하고, 두산퓨얼셀 제품을 판매하게 됨에 따라 미국 연료전지 시장 진출 가능. 하이엑시움은 24년 연료전지 30MW를 수주. 25년 수주 기회도 충분. 국내 매출 확보와 미국 시장 진출을 반영하여 투자의견 Buy 유지

1분기: 과거와 같은 매출 공백 문제 해소. 수익성 개선은 하반기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 973억원(+207% y-y), 영업적자 30억원(적전 y-y, OPM -3.1%)으로 전망하며, 컨센서스 소폭 하회 예상. 과거와 같이 주기기(연료전지) 매출 공백 이슈는 없을 전망. 다만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수주한 연료전지의 단가가 하락하고, SOFC(고체산화물연료전지) 감가상각비 증가, 연결회사인 하이엑시움모터스 적자로 영업적자 불가피. 하반기로 가면서 연료전지 생산량 증가. SOFC 초도 생산(하이창원프로젝트, 9MW)으로 고정비 절감 기대

	2024	2025E	2026F	2027F
매출액	411.8	547.3	606.3	675.0
증감률	57.8	32.9	10.8	11.3
영업이익	-1.7	-1.8	18.7	34.8
증감률	적전	적지	흑전	85.5
영업이익률	-0.4	-0.3	3.1	5.1
(지배지분)순이익	-10.5	-14.9	9.9	24.6
EPS	-160	-227	151	376
증감률	적지	적지	흑전	149.4
PER	N/A	N/A	88.4	35.4
PBR	2.6	2.2	2.2	2.1
EV/EBITDA	86.4	53.0	22.0	15.1
ROE	-2.1	-3.0	2.0	4.9
부채비율	136.5	116.0	108.6	97.0
순차입금	285.6	103.9	60.4	25.4

단위: 십억원, %, 원, 배

